

# 수용거부변혁과정 -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 : A·R·T 과정 (Christian World-view as a Filter: Assimilation·Refusal·Transformation PROCESS)

강상우(백석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수료)(대학원 2-1)

## 논문 초록

본 연구 목적은 A·R·T 과정(수용: Assimilation, 거부: Refusal, and 변혁: Transformation Process)을 통한 필터(여과기)로서의 기독교세계관의 기능을 감당함을 보이는데 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인공물(artifact)에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세계관이 존재하고, 인간은 자신들의 세계관이라는 창(窓)을 통해 인공물을 만들고 또 자신들의 세계관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관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관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세계관을 수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창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새로운 안경(眼鏡)을 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기독교세계관(paradigm shift)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는 월터 스토프가 말한 지배신념(Control Belief)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이 삶의 영역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실적으로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이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세계관이 ART 과정을 통해 교회나 공동체 밖의 문화와 사상, 정책 등의 인공물에 대해서 수용(A: assimilation), 거부(R: refusal) 또는 변혁(T: transformation)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어떻게 기독교세계관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먼저 기독교세계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자기반성적 ART과정을 통한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을 구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는 기독교세계관의 정확한 측정을 실행을 위해서는 외부감시적 ART과정을 통한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이 작동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정확한 측정 기구를 지닐 수 있다면 측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한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ART과정을 통한 필터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 있으며,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 I 들어가면서

언젠가 딸과 함께 시내를 걷고 있을 때에 어디에서 노래 가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노래[외톨이야]의 가사는 내 귀에 “메추리야, 메추리야 .....” 또는 “내 꿈이야, 내 꿈이야 .....”라고 들린 것이다. 내가 딸에게 그렇게 들린다고 하니 옆에 있는 딸은 박장대소하였다. 왜냐하면 사실 그 노래가사는 내 귀에 들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가사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문득 나는 과거의 다른 유사한 경험이 떠올랐다. 내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을 것이다. 누나들이 공부하는 도시에 가서 여름방학을 보냈었다. 공부하느니라 바쁜 누나들이 나를 데리고 시내나 유원지 같은 곳으로 놀러 다니지 않아서 대부분의 시간을 누나들이 자취하는 상하방(房)에서 혼자서 있어야 했고, 누나들이 공부하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 라디오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한번 라디오를 듣는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온 것이었다. 분명 그 당시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오리리 나는 아멘.....” 그 당시 수없이 들었던 다른 노래 가사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다만 “오리리 나는 아멘.....”이라는 가사만이 자연스럽게 나의 귀구멍에 들어와 등지를 틀고 있었다. 사실 그 당시 나는 이 가사부분을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번은 라디오에서 같은 노래 가사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오리리 나는 아멘.....”이라고 따라서 했더니 옆에 있던 세 명의 누나들이 동시에 뒤집어지면서 웃는 것이었다. 그 까닭을 알고 보았더니 내가 “오리리 나는 아멘”이라고 부른 그 노래의 가사는 “별이 빛나는 밤에 ...”이었으니, 당시 누나들의 눈에 나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웃기게 보였을지 가히 짐작이 될 만하다. 감시 길을 같이 걷다가. 이 이야기를 딸에게 해주었더니 딸은 옛이야기가 끝나기도 무섭게 나의 앞에 서서 “오리리 나는 아멘.....” 그리고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해석까지 덧붙이면서 “아빠 귀에 그 당시에 이렇게 들렸지! 하나님(God!) 오리(duck)가 나니까(is flying) 아멘(amen)입니다.”하고 웃으면서 저만치 도망가 버린다. 지금도 생각이 나면 내 딸은 “내 꿈이야”와 “오리리 나는 아멘” 이야기를 번갈아 하면서 나의 기를 죽인다.

세계관의 글을 쓰려고 하면서 왜 세계관과 관계가 없이 생뚱맞은 나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이는 내가 노래가사를 바로 알지 못해서 해프닝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처럼, 신앙인으로 생활할 때에 기독교세계관(기독교적 관점)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세계관이 없는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따지며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들기 때문이다(물론 우리가 생활하는 데 모든 것을 시시비비를 따지면 분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독교세계관과 상충되는 중요

한 문제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는지 또 어느 것이 틀린지 알지 못하는 혼돈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기독교세계관은 필터(여과기, Filter)와 같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Wolterstorff, 1991: 86-90; 참조 Clark, 1999: 207)가 지적한 것처럼 ‘지배적 신념’(control belief)으로 작용해야 한다. 기독교세계관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마치 정수기의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정수기에 필터가 없거나 필터가 있더라도 제(諸)기능을 잘 담당하지 못한 정수기에 나온 물을 음용수로 사용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하다. 이처럼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이라는 필터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영적으로 분별<sup>1)</sup>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좇는 삶을 살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터로서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

본고에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세계관은 하우즈바르트가 이데올로기를 정의할 때처럼 매우 광범위하게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가치, 개념, 신념, 및 규범의 전체 체계(Goudzwaard, 2002: 18-19)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의 A·R·T이란 수용(A: assimilation), 거절(R: refusal), 변혁(T: transformation)의 앞 글자의 조합으로 ART 과정이란 필터로서 기독교세계관을 통한 수용, 거절, 그리고 변혁의 구체적인 작동(作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공물(artifact)이란 자연물과 대조되는 사전적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에 관한 연구는 학제간과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학문적 깊이를 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의 지식의 얕음으로 인해 내용의 깊이 면에서 수박 겉핥기식의 전개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본고는 한계를 지닌다 하겠다. 특히 IV. 3.의 “앞의 사례에 대한 필터로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구체적 ART 과정”에서 더욱 이러한 한계점을 지닌다 하겠다(연구 한계로 제언에서 이종교배에 의한 공동연구와 공동연구전문가 집단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1)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서 분별하라(proving)는 말은 간파하고(discerning) 여러 영을 시험하는 (testing the spirits) 행위와 관련된 지적 활동을 의미한다.”(Mouw, 1999: 40)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I. 들어가는 말에서는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의 필요성과 용어정의와 연구한계 및 연구내용을 기술하였다. II. 세계관에서는 1. 세계관의 존재에서는 모든 인공물에는 세계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례를 통해서 기술하고, 2. 세계관의 역할에서는 창(窓)과 같은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기술하였다. III. 기독교세계관에서는 기독교세계관의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인간의 타락으로 왜곡된 세계관, 2. 왜곡된 세계관을 수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독교세계관을 지닌다는 의미와 3. 다양한 기독교세계관을 합의된 하나의 기독교세계관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IV.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에서는 1. 필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독교세계관 구성(자기반성적 ART과정)과 2. 필터로서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작동(외부감시적 ART과정)에 대해서 살펴본 후, 3. 앞에서 기술한 사례(II의 1. 2)를 통해서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구체적인 ART과정을 시도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V. 마치는 말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쳤다.

## II 세계관

### 1 세계관의 존재

인간이 만든 모든 인공물에는 세계관이 존재한다. 우리 자신이 인지하든 인지하든 못하든 간에 말이다. 그렇다면 세계관(世界觀)이란 무엇인가. 세계관(World-view)이라는 단어는 칸트(I. Kant)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단어로 독일어로 세계(世界)를 의미하는 “Welt”와 관점(觀點)을 의미하는 “Anschauung”이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된 “Weltanschauung”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독일의 근세 철학과 낭만주의 문학의 시대에 생겨났다고 한다. “모든 사람은 머리 속에 세계에 대한 지적 모형-외부현실에 대한 주관적 재현-을 갖고 있다.”(Sire, 1993: 32인용)는 토플러(A. Toffler)의 말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들만의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어(J. Sire)는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세계관이란 우리가 사는 세계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일관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일련의 전제들

(참이거나 부분적으로 참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거짓일 수 있는 가정들)이다(Sire, 2002: 32; Sire, 1991: 19; Colson, and Pearcey, 2002: 36 참조).

히버트(Hiebert, 1991: 45; 김성욱, 2003: 254인용)는 세계관이란, “한 문화의 신념들과 행동들 뒤에 놓여 있는 실재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들이다.”(“The basic assumptions about reality which lie behind the beliefs and behavior of a culture are sometimes called a world view”)고 정의함으로 세계관을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헤셀그래브(Hesselgrave, 1979: 25; 김성욱, 2003: 254인용)는 단순하게 세계관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정의한다(“A world view is the way people see or perspective the world, the way they ‘know’ it to be.”). 가장 단순하게 세계관을 정의하면, 신국원(2005: 19)이 “세상과 인생을 내다보는 창(窓)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양승훈은 세계관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본질상 가치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개인의 가치 체계를 나타내는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세계관에 대한 우리의 선결과제는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불가피하게 세계관을 견지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양승훈, 2000: 35).

사이어(Sire, 1991: 19)도 “사실 세계관-그것이 아무리 기초적이고 간단하다 하더라도-이 전제되지 않고는 전혀 사고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간은 가치중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고활동에 세계관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세계관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인간이 만든 모든 인공물들은 어떤 세계관을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계관의 존재에 대해 살펴보자.

(1) 문제(問題)에 세계관이 들어가 있다. 다음은 과거 사법시험에 나온 경제학문제다. 이 문제(법정연구원 편저, 1991: 221-222)에는 여성의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전제가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결혼한 여성의 노동은 가사노동으

로 취급되어지기 때문에 국민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문 40] 어떤 홀아비가 년 50만 원을 지불하고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었다. 그 후 그는 이 가정부와 결혼을 하게 되어 년 100만원의 용돈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 때 국민소득계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19회 司試)

- (1) 국민소득은 늘어나며 구처분소득도 늘어난다.
- (2) 국민소득은 늘어나지만 가처분소득은 줄어든다.
- (3) 국민소득이나 가처분소득은 공히 줄어든다.
- (4) 국민소득은 변화가 없으며 가처분소득은 줄어든다.
- (5) 국민소득과 가처분소득은 공히 변하지 않는다.

문제 아래에는 친절하게 해설이 덧붙여져 있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다.

[해설] 결혼하기 전 가정부가 받은 금액은 국민소득에 계상되나, 결혼 후 부인이 받은 가사노동의 몫은 국민소득의 계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소득은 줄어든다. 따라서 홀아비의 경우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후의 가처분소득도 50만원이 더 줄어든다.

(2) 용어(scientific terms)에 세계관이 들어 있다. 학술용어의 선택에도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같은 용어더라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거나,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 다른 세계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오늘날 사회복지에서 매우 널리 알려진 용어다. 그러나 임파워먼트라는 용어는 다소 모호할 뿐 아니라, 보수적인 자본주의에서부터 급진적 행동주의 막시스트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자유방임주의 경제와 최소한의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자본주의자들에 따르면, 임파워먼트는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급진적인 막시스트에 의하면, 임파워먼트는 복지국가의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당해 온 사람들의 손 안으로 힘을 이동시키는 과정이다(김미경, 2007: 15-16).

이와 비슷한 하나의 예가 사회복지분야에서 Poor Law(Old Poor Law = Elizabeth Poor Law of 1601과 Poor Law Amendment of 1834의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의견의 차이도 일종의 세계관이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Poor Law가 그의 내용면에서 구빈(救貧)의 목적을 가진다고 보는 연구자들은 이를 구빈법(救貧法) 즉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법으로 해석할 것이며, 법의 내용상 구빈과는 전혀 무관하고 단지 빈민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이해하는 연구자들은 빈민법(貧民法)으로 해석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물론 대부분은 사회복지학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 둔감할지도 모른다).

(3) 다리(橋脚)건설에 세계관이 들어 있다. 우리는 대부분 가치나 전제 등은 기술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기술에도 가치의 전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홍성욱이 자신의 책에서 소개한 아래의 로버트 모지스의 사례에서는 백인 중심적 인종차별주의를 찾아볼 수 있다.

로버트 모지스(Robert Moses, 1888-1981)는 1930-1950년 사이에 뉴욕 시의 구조와 경관을 디자인했던 건축가이자 행정가이다. 그는 뉴욕 주위에 여러 공원을 만들었는데, 특이하게도 존스비치공원의 진입로 위를 지나는 고가도로의 높이를 무척 낮게 설계했다. 그 결과 자가용을 가진 중산층 이상의 백인들은 공원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지만, 주로 버스를 이용하던 흑인들은 이 공원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백인들만이 쾌적한 공원을 만들고 싶다는 모지스의 인종차별 의식이 건축물에 각인된 것이다(홍성욱, 2008: 77).

물론 콘크리트로 만든 다리(橋脚) 그 자체(per se)에는 가치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부실공사를 했다면 거기에는 맘몬이즘이라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만약 부실공사 등 그 어떠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설계나 건축물의 건립 목적이나 건축물의 형태(상징) 등에는 건축가의 가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림(繪畫)에 세계관이 존재한다. 예술에도 가치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김용규는 르네상스시대의 화가의 작품에 그 당시의 시대정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은 ..... 고대 그리스의 정신과 규칙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모방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탐구했고 라파엘로는 제자들을 그

리스로 보내 고대 미술품들을 모사해 오게 했지요. 그 결과 성서 이야기를 다룬 이들의 작품에도 그리스 문화가 자연스레 혼합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에서 신이 제우스의 모습을, 아담이 아폴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나 라파엘로의 <성모자상>에서 성모가 아테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지요. 미켈란젤로는 말년의 대작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을 주재하는 예수까지 아폴론의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김용규, 2010: 47)<sup>2)</sup>

(5) 척도(尺度)계발에도 세계관이 존재한다. 킨제이가 고안한 동성애 척도의 경우에는 킨제이 자신의 성적 성향에 대한 관점이 들어 있음을 아래의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킨제이]는 0에서 6가지 7단계의 척도를 고안해냈다. .... 킨제이는 이성애를 Het으로, 동성애를 H로 표기했는데, 이 암호를 이용해 척도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0=전적으로 Het. 1=현저한 Het. 우발적인 H 경험(또는 심리적 반응), 2=여전히 현저한 Het이지만 우발적인 H 반응과 경험이 훨씬 더 많음. 3=두 가지 성향이 똑같음, 4=2의 반대, 5=주로 H이지만 우발적인 Het 경험, 6=전적으로 H.(Gathorne-Hardy, 2010: 162-163).

킨제이가 계발한 동성애 척도는 킨제이 자신의 성적 경향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킨제이에 성적 경향에 대해서 제임스 존스는 킨제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성애자였다(Jones, 1997: 77, 79, 123-124, 163, 171, 233, 262, 272, 343, 382; Gathorne-Hardy, 2010: 104인용)고 주장한 반면 개손-하디는 킨제이는 양성애자였고 이러한 이유로 남녀의 성행동을 연구하기에 거의 이상적인 조건을 소유할 수 있었다(Gathorne-Hardy, 2010: 105)고 평가한다. 킨제이 자신이 존스의 주장처럼 동성애자였던 아니면 개손-하디의 주장처럼 양성애자였던 간에 킨제이 자신의 동성애와 이성애 즉 양성애를 오가는 그의 성적 성향이 바로 동성애 척도계발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 2 세계관의 역할

2) 예수의 머리는 바티칸에 있는 <벨베데레의 아폴론>을 그대로 모사했고, 예수의 몸통은 당시 ‘벨베데레의 헤라클레스’라고 불렀던 <벨베데레의 토르소>를 똑같이 베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조각을 아주 좋아해서 거의 장님이 된 말년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교황청에 들어가 그것을 어루만지며 감탄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조각을 ‘미켈란젤로의 토르소’라고도 불렀다(김용규, 2010: 47 각주).



그렇다면 세계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세계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에 대해서 월터스(A. Wolters)는 “세계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는 세계관이 우리 삶의 인도자의 기능을 한다고 믿는다. 세계관은 그것이 의식되지 못하고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조차도 나침반(羅針盤)이나 약도(略圖)의 역할을 한다.”(Wolters, 2004: 18)고 하며, 내쉬(R. Nash)의 경우에도 “우리는 이 틀[세계관]을 통해 실재를 해석하고 판단한다.”(Nash, 2003: 31-33)고 지적한다.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세계관은 나침반(羅針盤)이나 약도(略圖)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실재(實在)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다시 말해 세계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호트(John Haught)가 지적한 것처럼 “독법”(Reading: 이로 인해 독법의 문제(reading problem)가 발생한다)(Haught, 2005)의 기능과, 쿤이



지적한 “패러다임”(Paradigm)(Kuhn, 1992)<sup>3)</sup>의 역할을 한다는 볼 수 있다.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위의 [그림1 게슈탈트 그림]들은 영양(antelope)으로 보일 수 있고 펠리컨(pelican)으로도 보일 수 있다. 옆의 그림은 오리로도 보이기도 하고 다른 관점에서는 토끼로도 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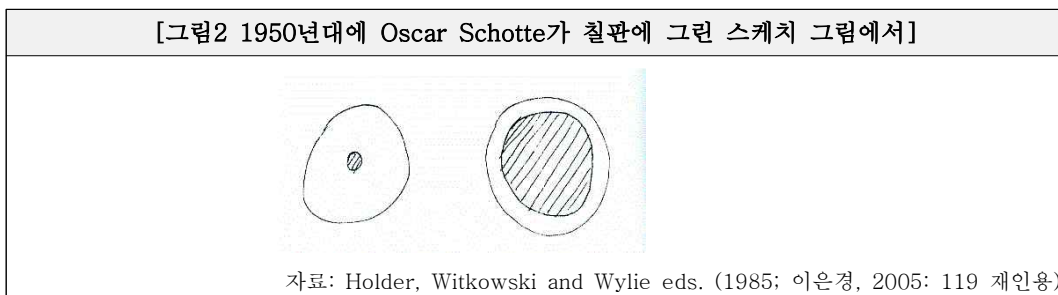
그렇다면 구체적 사례에서 세계관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술해 보기로 하자.

(1) 세계관은 설명(說明)에 영향을 미친다. 원자(原子)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세계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계관의 차이는 독법의 차이를 가져

3)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과학적 성취를 이르며, 그것은 어느 기간 동안 전문가 집단에게 모형문제와 해답을 제공한다.”(Kuhn, 1992: 10); 김용규는 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쿤에 의하면, 패러다임(paradigm)이란 본디 그 자체가 ‘신념’과 ‘가치체계’이자 동시에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패러다임과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둘은 사실상 서로 뒤엉켜 있는 하나의 혼합물이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시첵(時體)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김용규, 2010: 227).

옴으로 같은 과학자이지만 전공분야가 다른 물리학과 화학자에게 있어서 헬륨 원자에 대한 설명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화학자에게 헬륨은 분자지만 물리학자에게는 분자가 아니라고 한다. 쿤이 든 예를 살펴보자(쿤에 의하면 이러한 질문을 한 사람은 James K. Senior였으며 이 내용은 그에게서 들은 것이며, 이에 관련된 문제들이 그의 논문인 "The Vernacular of the Laboratory" Philosophy of Science, XXV, (1958), 163-168에 실려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원자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유명한 물리학과 화학자에게 헬륨 원자가 분자인지 아닌지를 질문하였다. 둘은 다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는데 그들의 답은 서로 같지 않았다. 화학자에게 있어 헬륨 원자는 기체의 운동법칙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분자였다. 물리학자에게는 헬륨 원자는 분자 스펙트럼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다 동일한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 자신의 연구와 관행을 통해 그것을 보았다. 그들의 문제 해결의 경험은 그들에게 분자는 어떠한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경험은 공통된 부분이 많았지만, 이 경우에는 두 전문가에게 동일한 결론을 주지 않았다(Kuhn, 1992: 74-75).



유전학과 발생학자는 똑같이 같은 발생과정을 보고 그림을 그리지만 그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세계관의 차이로 실험노트의 그림[그림2: 1950년대에 Oscar Schotte가 칠판에 그린 스케치 그림에서]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다(자료: T. J. Holder, J. A. Witkowski and C. C. Wylie, eds, A History of Embri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다음 스케치의 두 그림은 매우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세포를 그린 것이다. 두 그림은 발생과정에서 세포질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생학자(왼쪽)와 발생의 핵심은

유전자라고 파악하는 유전학자(오른쪽)가 세포를 묘사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발생학자는 세포질이 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반면 유전학자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핵이 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표현방식은 매우 다르다. 이는 과학자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신의 기존 관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뜻한다(이은경, 2005: 119).

(2) 세계관은 관찰(觀察)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세계관이 관찰에 미치는 것에 대한 헨슨의 소개의 글이다.

케플러(Johannes Kepler)가 언덕 위에서 새벽 해돋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리고 티코 브라헤(Tycho Brahe)가 함께 서 있다고 하자. 케플러는 태양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톨레미(Ptolemy)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와 같이 티코 브라헤는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천체가 이 지구의 주위를 회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케플러와 티코는 새벽녘에 동일한 것을 보고 있는가. ....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케플러와 티코의 눈이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그들의 해돋이 때 동일한 것을 본다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물리적 상태와 시각적 경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동일한 감각 정보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동일한 것을 본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그들의 설명에서의 차이는 근본적인 시각 정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진 것에 대한 그 이후의(ex post facto) 해석(interpretation)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된다(Hanson, 1995: 15, 20).

세계관이 관찰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뉴턴의 무지개 색의 관찰일 것이다. 뉴턴은 원래 그의 실험에서 무지개 색은 빨노초파보의 5가지 색깔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뉴턴은 당시 7음계 ‘도레미파솔라시’와 자신의 색깔을 맞추기 위해 주황색과 남색을 첨가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무지개의 7원색이 만들어진 것이다(홍성욱, 2008: 45).

(3) 세계관은 행동(行動)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생활 속의 경험을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삶 속에서 얻어진 경험은 우리의 행동거지에도 영향을 준다

는 것을 월리스(Jim Wallis)는 버치라는 친구의 어머니를 통해 생활 속의 경험으로 형성된 세계관이 우리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나[Jim Wallis]는 버치라는 이름의 친구를 기억한다. 그는 디트로이트에서 나와 함께 일했다. 우리는 동갑이었고, 나는 백인이고 그 친구는 흑인이었다. 내가 번 모든 돈은 대학 학비를 위해 쓰였고, 그가 번 모든 것은 그의 아내, 어머니, 동생들을 위해 쓰였다. 그는 영리했고 이 세상에 대해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았다. 그러나 내가 처음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자기 집으로 가는 방법을 (글쓰기가 어려워서) 힘들게 겨우 적어 주었다. 나는 버치의 어머니를 만났다. 내 어머니처럼, 그는 아들의 안전을 걱정했다. 그녀는 아들의 투지가 스스로 어려움에 처하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했다. 나는 그녀가 경찰에 관해 말했던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내 어머니는 길을 잃으면 경찰을 찾아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항상 말해 주셨다. 버치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길을 잃었을 때 경찰을 만나면 숨으라고 말했다. 버치의 가족 모두는 나에게 경찰의 인종차별과 학대에 대해 각자가 겪은 일을 말해 주었다. 나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깜짝 놀랐다(Wallis, 2008: 92-93).

(4) 세계관은 사용(使用)목적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관의 차이는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슨은 인간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HGP)의 연구결과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콜린스(Collins)와 벤터(Venter)의 세계관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서로 다른 세계관이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학을 이용할 것인지를 원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Collins: 인간게놈 프로젝트 수석 연구원)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공개 도메인에 올려놓아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하고 볼 수 있기를 원했던 반면, 당시의 ‘영민한 해적’(Craig Venter, ‘영민한 그리고 비종교인인 해적’)은 돈을 벌기 위해 모든 프로젝트를 독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회사 셀레라(Celera)는 많은 유전자에 대해 특허권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 자료를 보려는 사람은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했겠지요. 저는 그것이 매우 다른 두 세계관 사이의 차이점을 비유적으로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과학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은,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재능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개인의 이익과 사적 이득을 위해 무신론적 도덕주의 및 유물론으로 과학을 사용합니다(Robertson, 2008: 101; Collins, 2009: 123-124 참조).

(5) 세계관은 윤리(倫理)에 영향을 미친다. 고전 희랍어에 경제생활을 묘사하는 단어가 2개 존재한다고 한다. 이 두 단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에 근거해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는지 알 수 있다.

고전 희랍어에서는 oikonomia(오이코노미아, οικονομία)와 chrematistike(크레마티스티케, χρηματιστική)라는 두 단어가 경제생활을 묘사하는 단어였다. 크레마티스티케는 “만약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더욱 많은 금전적 소유를 통해 자기 부요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이코노미아는 “자기에게 맡겨진 토지를 잘 관리함으로써 그 땅이 계속 과실이 풍성하게 하며, 그리하여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각자에게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지기의 행위를 표시하는” 말이다(Goudzwaard, 1979: 211-222; Walsh and Middleton, 1989: 195인용).

(6) 세계관은 신(神) 존재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페일리는 시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적 설계능력을 가진 시계공인 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것을 신의 존재에 대한 목적론적 증명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도킨스는 이에 반대하여 페일리가 발견한 시계공은 지적 설계능력을 가진 신이 아니라, 자연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공은 눈이 멀었다(blind)고 주장한다. 페일리는 지적 설계능력을 가진 시계공(The Watchmaker)은 도킨스에게는 지적 설계능력이 없는 맹목적이고 물리적인 힘에 지나지 않는 자연선택이라는 눈먼 시계공(The Blind Watchmaker)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킨스의 주장을 들어보자.

페일리는 망원경 같은 인간이 고안해 낸 기구와 비교하면서 눈은 어떤 것을 본다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으며, 망원경은 그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망원경이 인간의 설계를 통해 만들어졌듯이 눈도 반드시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열성적이고 성실한 페일리의 주장은 당대 최고 수준의 생물학 지식에 의거하였지만 잘못된 것이었다. 그것도 완전히 틀린 주장이었다. 망원경과 눈을 비교하는 것, 그리고 시계와 생물을 비교하는 것은 오류이다. 비록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그 과정을 전개하였지만, 모든 자연현상을 창조한 유일한 ‘시계공’은 맹목적인 물리학적 힘이다. 실제의 시계공은 앞을 내다볼 수 있다. 그는 마

음의 눈으로 미래의 결과를 내다보면서 톱니바퀴와 용수철을 설계하고 그것들의 조립방법을 생각한다. 다윈이 발견했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인 과정인 자연선택은 확실히 어떤 용도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생물의 형태와 그들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며, 거기에는 미리 계획한의도 따위는 들어 있지 않다. 자연선택은 마음도, 마음의 눈도 갖고 있지 않으며 미래를 내다보며 계획하지 않는다. 전망을 갖고 있지 않으며 통찰력도 없고 전혀 앞을 보지 못한다. 만약 자연선택이 자연의 시계공 노릇을 한다면, 그것은 ‘눈먼’ 시계공이다(Dawkins, 2004: 27-28).

도킨스의 이와 유사한 무신론적 논증은 또 다른 그의 책 『에덴의 강』(River out of Eden)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장[3장, “모르는 사이에 점차 나아지기”, Dawkins, 1995; 86-87, 또는 같은 책의 다른 제목의 번역서 Dawkins, 2005: 106-107에 나오는 난초의 성공적인 번식을 위한 생식전략]에서 언급한, 내게 편지를 보낸 목사는 말벌을 통해 신앙을 발견했다. 그러나 찰스 다윈은 다른 것으로 인해 신앙심을 잃었다. 다윈은 이렇게 적었다. “은혜롭고 전지전능한 신께서 맴시벌이 나비나 나방의 살아 있는 애벌레에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특별히 명시하여 계획적으로 그것을 창조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Dawkins, 1995; 125; Dawkins, 2005: 157).

도킨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

신의 효용목적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신의 효용목적은 그 뿌리를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비협조적으로 남을 밟고 오르려는 성질에 두고 있다. 사람은 복지라고 하면 집단의 복지를 생각하고 ‘선(善)’이라고 하면 사회나 종의 미래, 또는 생태계의 선으로 생각할 정도로 다소 친절한 경향이 있다. 자연선택의 근본을 심사숙고해 도출한 신의 효용목적은 슬프게도 그러한 이상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Dawkins, 1995; 156).

도킨스는 자연의 사례를 통해 볼 때에 극히 비효용(낭비)적이라는 것이다. 신의 효용목적이 공리주의의 원리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인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는 경제적으로 낭비인데, 낭비가 만연(漫然)한 신의 효용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신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위의 여러 사례에서처럼 세계관은 창(窓)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창을 통해 인공물을 보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것으로 그 인공물의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창을 통해 즉 어떤 세계관을 통해 인공물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인가.

### III 기독교세계관

#### 1 왜곡된 세계관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세계관 또한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타락은 우리가 하는 일에 왜곡된 영향을 주고, 생각하는 방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죄에는 지적(知的) 차원이 있는데, 죄가 사람의 마음을 가리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진리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Nash, 2003: 167). 즉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다고 말하고 이 타락의 결과의 하나가 바로 인간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 특히 지성과 의지가 왜곡되어졌다는 것이다. 인지기능(cognitive function)의 왜곡에 대해 성경은 구체적으로 타락으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futile), 마음이 어두워지고(darkened), 우둔해지고(fool),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게 된 것이다(롬1:21-23). 플랜팅가(Alvin Plantinga)는 이것을 죄의 인지적 효과(noetic effects of sin)라고 부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신념이 죄로 말미암아 참되게 형성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죄로 말미암아 인지 기관이 오작동(malfunction)하게(김종철, 2004: 191)된 것이다. 왜곡된 세계관의 문제는 기독교의 진리에 도전하게 된다. 왜곡된 세계관들은 잘못된 자신들의 관점(perspectives)에서 반(反)기독교적 관점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심지어는 기독교적 관점을 왜곡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로 인해 왜곡된 세계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안경을 제대로 쓰면, 세계를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정확한 세계관이라면 그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Nash, 2003: 33). 왜곡된 세계관은 안경을 바로 씌우어서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면 왜곡된 세계관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안경(眼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칼빈(Calvin)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을 “자연인의 안목을 고치는 안경”이라 했다. 성경은 우리의 안력을 바로잡아 주는 삼중 렌즈로 된 특수한 처방 안경이다. 뉴비긴(L. Newbigin)이 말한 것과 같이 성경은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아야(look at)할 책이 아니다. 성경은 그것을 통해 보아야(look through) 할 책,

즉 안경(신국원, 2005: 43)인 것이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이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참된 신념을 형성할 수도 없고, 지식에 기초해서 신념을 가질 수도 없다. 이에 대한 해결은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여 참된 신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한다.”(김종철, 2004: 192).

## 2 기독교세계관을 지님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세상과 사물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그것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 즉 기독교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 즉 기독교세계관을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월터스토프(Walsh and Middleton, 1989: 9, Wolterstorff, “책머리에”에서)는 “진정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경의 세계관을 채택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다”고 하였고, 손봉호(Wolters, 2004: 5, 손봉호, “추천의 글”에서)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형성한 세계관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이다. 양승훈(2000: 44)도 이에 대해서 “영어의 크리스천(Christian)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基督敎人)’이라는 명사적 의미와 ‘기독교적(基督敎的)’이라는 형용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 말은 곧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적이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기독교적’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는 개인이나 기독교 공동체의 성장과정에서 분리될 수 없는 또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경의 세계관을 채택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기독교세계관이란 성경적 세계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각 교파에 따라서 기독교세계관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다양한 기독교세계관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고 있다. 양승훈(2000: 47)은 “기독교적 세계관도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가톨릭과 루터, 웨슬리와 칼빈의 세계관도 다르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근본주의와 개혁주의의 세계관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며, 이승구(2003: 232)도 “개혁주의적 세계관이 아닌, 기독교 세계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그는 계속해서 “기독교 관점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실천하는 기독교세계관의 그 내용이 담기지지만 한다면 그 어떤



형태의 기독교세계관 제시라도 있을 수 있다. 기독교세계관은 처음부터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이 세상에 제시된 것이다”고 한다(이승구, 2003: 65).<sup>4)</sup> 최태연(2003: 83-100)은 기독교세계관운동 비판을 통해서 반성하게 된 것 중의 첫 번째 것으로 “종교개혁자 칼빈의 개혁신학과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新)칼빈주의’ 신학을 모체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 즉 ‘개혁주의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의 전부일 수 없다”고 한다. 김기현은 기독교세계관은 다양하고, 개혁주의 세계관은 우월하지 않다고 한다. 그는 “... 개혁주의세계관 역시 변혁 모델의 한 형태이다. 문제는 개혁주의만이 옳다는 인식이다. 나는 다양한 변혁 모델의 공존을 강조하는 것이다.”(김기현, 2003: 25)고 주장함으로써 하나의 기독교세계관의 우월이나 강조가 아닌 다양한 기독교세계관의 존재를 강조한다. 이들의 주장처럼 우리는 다양한 기독교세계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월터스의 주장처럼 우리는 회람 정교, 로마 가톨릭,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이 상당한 정도의 동일한 성경적 유산과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Wolters, 2004: 22).

### 3 합의된 기독교세계관 필요

다양한 기독교세계관의 존재는 어느 정도 합의(合意)된 통일된 기독교세계관을 필요로 한다. 통일된 기독교세계관이 필요한 이유는 교파주의의 해(害) 때문이다. “교파주의(denominationalism)는 기독교의 도덕적 실패를 나타낸다.”라고 말한 니버(Richard Niebuhr)의 단언이 종종 인용되어지는 것처럼(Newbigin, 1989: 158) 교파주의로 인한 많은 해(害)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교파적인 차이와 기타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 안에 있는 기독교 교회들은 놀랍게도 거의 같은 신학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교파적인 전통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자세는 대개의 경우 분명하기(Snyder, 2000: 21)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다양한 기독교세계관을 통일할 것인가. 신앙과 교리의 편차가 적지 않은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신앙적인 입장의 공통부모를 모아 한 목소리의 문서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신앙과 교리란 많은 공통점에 근거하여 연합하기보다는 자그마한 차이에도 서로 분리하려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이다(정종훈, 2002: 29).<sup>5)</sup> 신앙과 교리의 서로 분리하려는 속성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기독교세

4) 아더 홈즈(A. Holmes)의 경우 늘 이점을 강조 했다. “기독교 신학은 다양하게 형성되었으므로 기독교 세계관 역시 그런 다양성을 지닌다. .... 나는 이런 다양성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Holmes, 1994: 60이하).

5) “신학은 나누고, 성경은 일치시킨다.”는 말은 오늘날까지 훌륭한 표어가 되고 있다(Wilhoit, 1991: 38); 참고, WCC의 교회론의 모토였던 “신학은 분열시키고, 봉사는 연합시킨다.”(Theology divides, service

계관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손봉호는 다양한 세계관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대표로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오늘날 기독교란 이름을 가진 수많은 교파들과 신학사상들이 있다. 어느 신학, 어느 종파를 기독교의 대표로 볼 것인가는 쉽지 않다. 차라리 성경을 대표로 내세우는 수밖에 없다.”(손봉호, 1976; 손봉호, 1979: 372). 왜냐하면, 기독교세계관의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더라도 원리적으로 바른 기독교 세계관은 교파나 신학적 입장과 무관하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유”(양승훈, 2000: 47)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대표로 해서, 전통과 교리의 차이점을 정죄와 분열의 도구가 아닌, 서로에게 도전과 상호보완의 기회로 주어질 수 있다면, 통일된 기독교세계관으로 나갈 수 있다. 위대한 청교도 작가인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가 남긴 지혜로운 명언은 이 점에서 매우 가치가 크다 할 수 있다. 그는 “본질적(本質的)인 것에서는 일치(一致)를, 비(非)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自由)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in necessariis unitas, in non-necessariis libertas, in utrisque caritas)(McGrath, 2005: 26재인용)이라고 외쳤다. 백스터가 우리에게 준 지혜처럼, 전통과 교리의 분리적인 속성으로부터 벗어나, 성경을 대표로 내세워서, 본질적인 것에서의 일치를 도모함으로써 인해 다양한 기독교세계관을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의 통일을 위해선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다양한 기독교세계관의 합의(合意)의 예를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한국에서의 사역이다. 그들은 비록 교파는 달랐으나 그들은 같이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견됨과 동시에 함께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으며, 일생을 통해 가장 친근한 선교의 반려자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한 생애를 바쳤다(김장대, 1998: 80).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각 교단의 교파적 신학이라는 전통(傳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기독교 정통(正統)에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이 가능했을 것이다.

#### IV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All Truth is God's Truth)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마우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말은 기독교 전통을 대변하는 숭고한 선언이다. 그리고 그 전통의 주류는 영적인 진리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한

---

unites)와는 차이가 있다.

정된다는 뜻을 결코 의미한 적이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의 직접적인 근원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다른 근원에서 오는 진리 주장을 시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Mouw, 2004: 118).

기독교는 이즘(~ism)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의들(이즘, ~isms)은 모두 비(非)진리이다. 근본적으로 이것들은 사물을 보는 시각을 오도[하기]”때문이다(Mouw, 1999: 21).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세계관은 지배적 신념(支配的信念: Control Belief)으로서 이즘(主義: ism)이 아닌 척도(尺度, Canon)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기독교세계관은 구체적으로 필터(Christian World-view as a Filter)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sup>6)</sup> 즉, 기독교세계관은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세계관들을 규명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여과기(濾過器: filter)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 모든 분야와 그에 수반되는 이론들(그 중 많은 것은 서로 상충한다)이 종종 검토되지 않은 전제들(검토되지 않은 전제들이란, 너무나 참된 것으로 여겨져서 그것을 가장 깊이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조차도 아무런 대안도 생각해 본적이 없는 그런 개념들이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전제들이 되는 세계관들을 규명하고 분석하고 비판해야만(Sire, 2002: 191)<sup>7)</sup>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나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이근삼, 1991: 24)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한 조망이 아닌 기독교세계관적 조망(眺望)을 통해 정치, 문학과 예술, 학문과 교육, 가정과 삶의 전체의 도덕적 성격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부분까지 미쳐야 한다(Holmes, 1994: 30).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기독교세계관적 조망은 실천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

6) 윌리엄 핼버슨(W. H. Halverson)이 흥미로운 말은 한다. “모든 세계관의 중심에는 그 세계관의 ‘표준명제’로 불리는 것이 있다. 실제에 관해 유일하게 근본적인 진리라고 여겨지는 명제이다. 또한 다른 명제 가운데 어떤 명제가 믿을 만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 명제이다. 어떤 명제 P가 표준명제 또는 세계관과 모순되는 것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그 세계관을 고수하는 한, P명제를 거짓으로 여겨야 한다.”(Halverson, 1976: 384; Nash, 2003: 71인용)

7) 필립 존슨(P. E. Johnson)은 “과학자들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형이상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 없이 매일의 생활을 영위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사고는 형이상학적 가정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사실 형이상학적 가정들은 그것이 무의식적이고 표면에 떠오르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Johnson, 2000: 72); “신앙이나 논리가 존재에 대해 갖는 나름의 관점을 전문적으로 표현한다면 ‘형이상학적 전제’라고 한다. .... 형이상학적 전제 비판이란 모든 생각이나 사상의 밑바닥에는 존재에 대한 일정한 관점, 즉 형이상학적 전제가 깔려 있음을 밝혀내는 작업이다.”(최한빈, 이경직, 최태연, 2004: 186);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자연과학, 예술)과 보이지 않는 것들(인문/사회과학, 형이상학)과 ... 만물이 다 그(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1:16)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10:5).

## 1 필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독교세계관 구성(自己 反省的 ART過程)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이다. 기독교세계관이 필터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 내부에서 반성적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구성해야 필요가 있는데, 이를 기독교 내부에서의 기독교세계관의 필터 기능(내부 반성적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역사를 보면 같은 사회문제, 같은 사회적 사건 등에 대해서 기독교 내부에서조차 이율배반적인 행동과 해석이 존재해 왔다. 이율배반적인 행동과 해석임이 틀림없음에 불구하고 이들은 다 같이 그들의 주장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서로 상반되는 이율배반적 역사적 주장과 운동으로 인해 사실 기독교가 다른 집단들-무신론자, 여성신학자, 인본주의자 등-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루스의 다음 지적은 기독교안의 이루어진 이율배반적인 해석에 대해 지적한다.

여기서 비판가들은 기독교 윤리학이란 것은 없으며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뿐이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다. 주의 이름 하에서 행동하는 것을 저지할 방도가 없으며 흔히 모순된 행위가 참된 기독교인의 길로 추구되기도 한다. 기독교인은 사유재산을 옹호하는가 하면 그것을 비난하기도 한다. 기독교인은 노예제도를 찬성하기도 하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기독교인은 동성애, 출산조절, 낙태를 비난하는가 하면, 또 한편 (특히 최근에는)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며 산아제한을 권장하고 낙태를 옹호한다. 규범윤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인의 사고와 태도에 대해 무어라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사실이다(Ruse, 2002: 294-295).

울프도 노예제도폐지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도 과거 미국 교회 내의 복음주의자들에게서도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이들의 주장에 대해 난감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그들의 주장을 성경의 권위에 두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미국 남부에서는 거의 모든 백인 복음주의자가 노예제는 성경이 승인한 제도라 믿었고, 노예폐지론은 그들이 이해하는 사회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마저도 전복시킨다고 생각했다. 이 입장에 동조하는 북부 복음주의자도 있었다(Wolffe, 2010: 249).

왜 같은 사회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그 해석에 근거한 행동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는 기독교세계관도 성경해석학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해석도 이전의 신학자나 교부들의 자료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에 의존할 경우에는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기독교세계관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sup>8)</sup>(기독교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성경과는 거리가 먼 말뿐만인 기독교세계관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성경 말씀 자체는 무오(無誤)하지만, 성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절대적으로 무오(無誤)한 것이 아니다(Gaebelein, 1995: 24). 교회 또한 전적으로 무오한 것이 아니다. “교회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던(Gaebelein, 1995: 179. 이창국, “부록 II: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독교세계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경적 해석 등에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ART 과정을 통한 건전한 자기반성적 자기검토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도여베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실 신학도 이론적 사유의 초월적 비판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신학은 이론적 태도에 얽매어 있고 항상 철학적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철학도 이런 초월적 비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초월적 비판이 근본적 자기반성을 하지 않는 이론적 독단주의를 정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Dooyeweerd, 1994: 18).<sup>9)</sup>

또한 같은 연장선상에서 문석호도 “신앙과 학문의 무조건적 조화라는 측면보다는

---

8) “성경을 세계관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오직 성경만 필요하다’는 성경주의(Biblicism)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사상을 찾고 그것을 당시의 사조와 비교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성인경, 2001: 201); “너무나 불분명하고, 그래서 우리의 시야 너머에 있는 문제들을 다룰 때, 우리는 신앙의 선입견 없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성경구절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성급하게 그 중 하나의 입장만을 취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그 입장이 논박되면, 우리 역시 함께 논박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해석을 위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해석에 맞추어 확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에서 우리의 해석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을 해석할 때 기정사실이라고 합리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을 옹당 참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이런 접근 방법은 기독교 신학이 결코 신-과학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다(McGrath, 2007: 138).

9) 도여베르트는 계속해서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그 중심적 종교적 의미에서 신학적 반성의 대상이 아니라 신적인 영적 능력으로 자신을 마음에 곧 우리 실존의 종교적 중심에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의 근본적 주제 즉, 창조, 죄로의 타락, 성령의 사귀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근본 주제는 결코 이 중심적 종교적 의미에서 신학의 학문적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 말씀 그 자체는 참으로 성경적인 모든 기독교적 사유의 초(超)신학적 출발점이며,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의 열쇠이다.” (Dooyeweerd, 1994: 107).

기독교의 신앙적 이론들이 건전한 자기 검토 속에서 다른 학문들을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늘 비판적 자기 검토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넓은 의미의 기독교 학문적 자세를 견지하는 입장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Wolterstorff, 1991: 6 문석호, “역자서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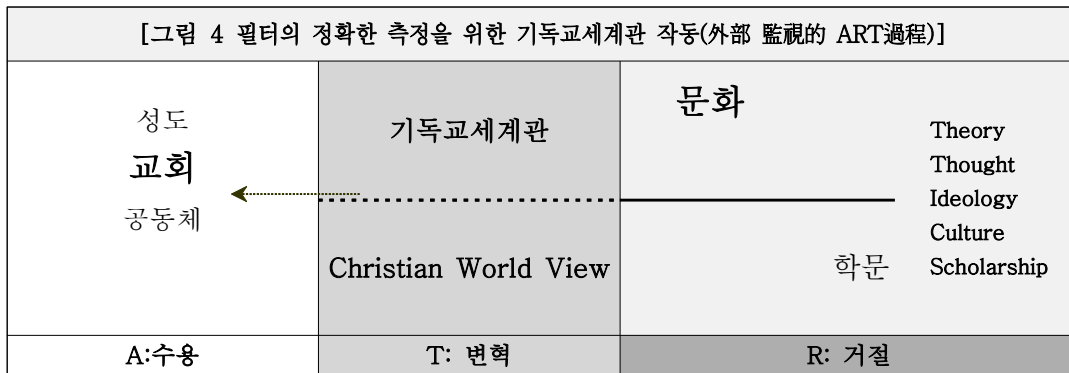
특히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사상(Christian Thought: 이뿐만 아니라, 교리, 성경적 해석, 기독교철학 등도)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올바른 기독교세계관을 통한 ART 작업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기독교사상들 중에는 간혹 잘못된 성경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성경 전체의 가치와 모순(矛盾)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과거에 노예해방에 대한 성경을 근거로 한 찬성의견이나, 남아프리카의 인종분리정책은 Apartheid<sup>10)</sup>의 정당화 등이 바로 잘못된 성경해석에 기인한 결과들이다. 또한 노예제폐지와 인종분리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다름 아닌 올바른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성경해석이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성경해석의 경우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에 의해 ART과정을 걸쳐야만 한다).

## 2 필터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작동(外部 監視的 ART過程)

자기반성적 ART 과정(自己 反省的 ART過程)을 통해 기독교세계관을 구성한 후에

10) “성경해석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Apartheid(인종분리)정책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종분리정책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즉 잘못된 성경해석은 인종분리정책을 가져왔지만, 올바른 성경해석은 인종분리정책의 붕괴를 가져왔던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행했던 인종분리주의 정책이 비교적 신속하게 철회된 것은 인종분리정책을 펴는 정부에 내려진 제재(制裁)가 아니라 1980년대 말 화란개혁교회(The Dutch Reformed Church)가 ‘인종분리주의 정책은 이단이다.’라고 선언한 것을 축으로 마련했다고 한다.”(Horton, 2009: 275-276).

필터로서의 외부 감시적 ART 과정(外部 監視的 ART過程)으로 기독교세계관이 외부에서 작동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을 통해서 교회나 공동체 밖의 성경적 가치와 대립되는 사상이나 이론, 문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필터링의 기능을 감당해야만 한다. 기독교세계관과 상반되는 모든 가치와 사상, 문화에 대해서는 거절(R: refusal)하여야 하며,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세계관에 맞게 변혁(T: transformation)을 통해 수용하여야 하며, 그리고 성경이 가치관과 일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A: assimilation)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할 때에는 더 많은 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다(기독교문화 모형을 변혁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는 ART과정 중에서 변혁(T: transformation)적 수용이 신앙공동체 안에서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 3. 앞의 사례에 대한 필터로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구체적 ART과정

앞에서 언급한 II 세계관, 1 세계관의 존재의 내용을 통해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구체적 ART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사법시험문제에 나타난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먼저 성경이 남녀평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며, 과거 잘못된 성경해석이 가부장적 사회를 옹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육아 부담이 사회적 문제 등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세금공제에 있어서 육아 양육이나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책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파워먼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재(再)정의할 필요가 있으

며, 구빈법이나 빈민법이나의 용어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Poor Law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용어의 사용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영어 그대로 Poor Law라는 용어를 사용도 무방할 것이다.

다리 건설의 경우 인종차별이 아닌 공공시설물로 편의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인종, 계층,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떤 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그림의 경우, 예술로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인간의 사고와 표현에 간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다). 미술에 대해 문외환인 개인의 견해로는 미켈란젤로나 라파엘의 작품이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전체적 맥락에서 그림의 의미를 감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키젠이의 동성애척도를 통해 왜 동성애 성향에 차이를 보이느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교도소에서 동성애적 성향의 증가의 경우, 가톨릭 성직자 집단에서 동성애 성향).<sup>11)</sup> 동성애의 성향이 유동적이라는 것은 일부 과학자(사회생물학자나 사회심리학자들의 경우처럼)들에 의해 주장되어지듯이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한 유전적 요인이라기보다도 환경적 요인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척도에 의한 연구결과를 동성애의 요인을 환경적, 사회·심리적 요인만으로 돌린다고 동성애를 질병으로 이해하고 다루는 것은 지양(止揚)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세계관, 2 세계관의 역할에서 언급한 원자에 대한 설명과 과학자의 실험노트, 그리고 관찰에도 세계관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보았다. 심지어 행동(praxis)과 과학적 성과의 사용목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경제생활을 묘사하는 희랍어에 oikonomia(오이코노미아, οικονομία)와 chrematistike(크레마티스티케, χρηματιστική)라는 두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세계관은 경제생활은 청지기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성경은 경제생활에서의 청지기

---

11) “동성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이 의견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동성애를 유발하는 원인이 생물학적인 이유에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행위가 난잡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의 성행위가 난잡하다고 하는 이유는 섹스를 원하는 남성을 찾는 것이 섹스를 원하는 여성을 찾는 것 보다 쉽기 때문이며,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결혼과 부모의 역할에서 오는 책임감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Posner, 2007: 451).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청지기적 접근을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oikos는 집을 의미하고, nomos는 법(규)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제를 의미하는 economics, 생태학을 의미하는 ecology도 모두 집을 의미하는 oikos에서 왔다는 사실은 이를 보여준다).

세계관이 신(神) 존재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예로 페일리의 시계공(The Watchmaker)과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The Blind Watchmaker) 주장을 보았다. 페일리는 설계를 통해 설계자의 존재를 발견한데 반해, 도킨스는 자연선택 즉 진화의 관점과 효용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설계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설계자를 보지 못한 도킨스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로 무신론을 하나의 종교로 신봉하게 되었다. 특히 2009년 초에 거액을 기부해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800대에 도킨스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라.”(“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는 광고문을 부착하여, 버스광고를 통한 무신론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EBS다큐프라임 제작팀 지음, 2010: 169).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도킨스의 주장은 백해무익할 뿐이다. 우리는 삼라만상을 통해 눈먼 시계공(The Blind Watchmaker)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뜬 시계공’(The Seeing Watchmaker)(이 단어는 김용규, 2010에서 본 것 같다)을 발견한다.

## V 마치는 말

### 1 요약

우리는 영적으로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한다. 인간이 만든 모든 인공물에는 세계관이 존재하고, 인간은 세계관이라는 창(窓)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런데 인식의 창인 인간의 세계관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새로운 창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안경(眼鏡)을 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세상의 세계관을 버리고 바로 기독교세계관(paradigm shift)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독교세계관이 윌터스토프가 말한 지배신념(Control Belief)으로 삶의 영역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이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세계관

이 ART 과정을 통해서 교회나 공동체 밖의 문화와 사상, 정책 등의 인공물에 대해서 수용(A: assimilation), 거부(R: refusal) 또는 변혁(T: transformation)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독교세계관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먼저 기독교세계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내부적으로 자기반성적 ART과정을 통한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필터로서의 정확한 작동을 위해서는 외부감시적 ART과정을 통한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이 작동하여야만 한다. 정확한 측정 기구를 지닐수록 오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한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ART과정을 통한 필터링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으며, 기록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 2 제언

그러나 필터로서 기독교세계관을 통한 ART 과정을 한다는 것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학제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을 통한 ART PROCESS를 잘 감당하기 위해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의 말씀은 진리이다 (“The Word is the Truth” Edward J. Young의 책제목). 기독교세계관은 진리이신 주의 말씀에 근거한다. 그리고 필터인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와 사상에 대해서 필터링(ART 과정)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경공부와 기독교세계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문화와 사상 등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세상 문화와 학문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가 있을 때에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정확한 필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평생 동안 한 손으로는 『성경』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붙들고 살았다”(김용규, 2010: 69)고 한다.

학제간 연구 집단 및 이종교배(interbreeding)전문 연구 집단에 의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신학교와 신학분야에 더욱 심각한 것은 학문적 동질교배라고 지적한다.

요사이 한국의 한계에서 학문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간주되는 학문적 동질교배

(inbreeding) 현상이 가장 극심한 곳이 바로 신학교와 신학분야가 아닌가 생각된다. 신학이 종교적 믿음을 변증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신학이 신자는 물론이고 비신자에게까지도 경쟁력 있는 변증학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상반된 의견을 지지하고도 깊이 있게 경청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하겠다(Ruse, 2002: 이태하, “옴긴이의 말”에서)

신앙(text)이 상황(context)에서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는 가운데 세상적 세계관에 대해 도전과 응징을 하기 위해서는 이종교배(interbreeding)전문가 집단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동질교배를 떠나 이종교배의 공동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독교세계관에 도전적인 세속적인 세계관들에 효율적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성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물론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신구약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의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에 대한 이해, 사회진화론자와 사회심리학자, 사회생물학자들의 동성애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나 동성애에 대한 다른 학문적 연구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동성애에 대한 시대적 이슈에 맞는 효율적 응징(膺懲)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과거 연구에는 동성애에 주제에 대해서 구약에서의 동성애, 신약에서의 동성애, 동성애와 선교, 동성애에 대한 심리사회적 이해, 유전과 동성애 등의 제목의 여러 논문으로 나누어진 연구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고 또 그들이 공동저자로 한 동성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언어적으로 모순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달리 표현하자면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통섭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김기현 (2003). “개혁주의 세계관 비판과 변혁 모델의 다양성”. 『신앙과 학문』. 8(2). 7-37.

- 김미경 (2007). “임파워먼트의 이해”. 정순돌 외 6인 공저. 『사회복지와 임파워먼트』. 서울: 학지사. 15-33.
- 김성욱 (2003). “선교를 위한 세계관 연구의 중요성”. 『신학지남』. 276. 243-269.
- 김용규 (2010). 『서양문명을 읽는 코드, 신』. 서울: 휴머니타스.
- 김장대 (1998). 『기독교 사회복지학』. 서울: 진흥.
- 김종철 (2004). “실천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메커니즘: 현대 인식론의 논의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9(1). 163-197.
- 법경연구원 편저 (1991). 『기출문제 객관식경제학』. 5판. 서울: 갑진출판사.
- 성인경 (2001). 『진리는 시퍼렇게 살아 있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손봉호 (1976). “성경과 마르크스의 인간관”. 『신학사상』. 15. 756-761.
- 손봉호 (1979). 『현대정신과 기독교적 지성』. 재판. 서울: 성광문화사.
- 신국원 (2005).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 양승훈 (2000).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CUP.
- 윤웅진 (2003). “사회비판이론과 기독교교육론”. 장종철 교수 은퇴기념논문편집위원회 편. 『믿음의 길 각성의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이근삼 (1991). “기독교대학의 신학적 기초”. 『통합연구』. 4(4). 9-25.
- 이승구 (2003).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 이승구 (2003).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들과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 『신앙과 학문』. 8(2). 59-81.
- 이은경 (2005). “제6강, 과학기술과 여성”. 한양대학교과학철학교육위원회 편. 『이공계 학생을 위한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110-124.
- 정종훈 (2002).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독일 개신교회의 정치윤리와 정치참여”. 이상원 편. 『한국교회와 정치윤리』. 서울: SFC.
- 최태연 (2003). “벼랑 끝에 선 ‘기독교 세계관’”. 『신앙과 학문』. 8(2). 83-100.
- 최한빈·이경직·최태연 (2004). 『신앙과 논리』. 재판. 서울: 살림.
- 홍성욱 (2008). 『홍성욱의 과학에세이: 과학, 인간과 사회를 말한다』. 서울: 동아시아.
- EBS다큐프라임제작팀 지음 (2010). 『신과 다윈의 시대』, 파주: 세계사.
- Clark, Kelly James (1999), *Return to Reason*. Grand Rapids, MI: Eerdmans. 이승구 역 (1999). 『이성애로의 복귀』. 서울: 여수론.
- Collins, Francis S. (2006), *The Language of God: A Scientist Presents Evidence for Belief* New York: Free Press. 이창신 역 (2009). 『신의 언어』, 파주: 김영사.
- Colson, Charles and Pearcey, Nancy (1999), *How now shall we live?*. Wheaton, IL: Tyndale House. 정영만 역 (2002).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서울: 요단출판사.
- Dawkins, Richard (1991), *The Blind Watchmaker*. W. W. Norton. 이용철 역 (2004). 『눈먼 시계공』. 서울: 사이언스북스.
- Dawkins, Richard (1995), *River out of Eden: A Darwinian View of Life*. New York: Brockman,

- Inc. 김용철 역 (2005). 『에덴의 강: 리처드 도킨스가 들려주는 유전자와 진화의 진실』. 서울: 사이언스북스. \* 참고로 이 책은 이전에 같은 역자에 『에덴 밖의 강』 (서울: 동아출판사, 1995)로 번역되었다.
- Gaebelein, Frank E. (1954), *The Pattern of God's Tru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이창국 역 (1995). 『신본주의 교육』. 재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Gathorne-Hardy, Jonathan (1998), *Alfred C. Kinsey*. David Higham Associates Limited. 김승욱 역 (2010). 『킨제이와 20세기 성 연구』. 서울: 작가정신.
- Goudzwaard, Bob (1979), *Capitalism and Progress: A Diagnosis of Western Society*. trans. J. Van Nuis Zylstra. Grand Rapids, MI: Eerdmans.
- Goudzwaard, Bob (1984), *Idols of Our Time*, Downers Grove. IVP. 김재영 역 (2002). 『현대 우상 이데올로기』. 서울: IVP.
- Halverson, William H. (1976), *A Concise Introduction to Philosophy*. 3rd. edition New York: Random House.
- Hanson, Norwood Russel (1958), *Patterns of Discovery: An inquiry into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송진웅·조숙경 공역 (1995). 『과학의 발견의 패턴: 과학의 개념적 기초에 대한 탐구』. 서울: 믿음사.
- Haight, John F. (2003), *Deeper than Darwin*. Westview Press. 김윤성 역 (2005). 『다윈 안의 신』, 서울: 지식의 숲.
- Hesselgrave, David (1979), *Communicating Christ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Zondervan.
- Hiebert, Paul G. (1991), *Anthropological for Missionaries*. Grand Rapids: Baker.
- Holmes, Arthur F. (1983), *Contours of a World View: Studies in a Christian World View*. Grand Rapids, MI: Eerdmans. 이승구 역 (1994). 『기독교 세계관』. 서울: 엠마오.
- Horton, Michael (n.d.), *Christless Christianity: the alternative gospel of the American Church*. 김성웅 역 (2009).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서울: 부흥과개혁사.
- Johnson, Phillip E. (1995), *Reason in the Balance: The Case Against Naturalism in Science, Law and Education*. Downer Grove: IVP. 양성만 역 (2000). 『위기에 처한 이성』. 서울: IVP
- Kuhn, Thomas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2nd enlarge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조 형 역 (1992). 『과학혁명의 구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McGrath, Alister E. (1996), *Passion for Truth*. Downers Grove: IVP. 김선일 역 (2005).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 서울: IVP.
- McGrath, A. (2005), *Dawkins' God*. Blackwell. 김태완 역 (2007). 『도킨스의 신』. 서울: SFC.
- Mouw, Richard J. (1989), *Distorted Truth*.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오수미 역 (1999). 『왜곡된 진리』. 서울: CUP.
- Mouw, Richard J. (1992), *Uncommon Decency*. Downers Grove, IL: IVP. 홍병룡 역 (2004). 『무례한 기독교』. 서울: IVP.
- Nash, Ronald R. (1962), *Dooyeweerd and the Amsterdam Philosophy*. Grand Rapids: Zondervan. 김기곤 역 (1992). 『도예베르트와 기독교철학』. 서울: 성광문화사.

- Nash, Ronald R. (1988), *Faith and Reason*. Zondervan, 1988. 이경직 역 (2003). 『신앙과 이성』. 서울: 살림.
- Newbigin, Lesslie (1979), *Foolishness to the Greeks*. Grand Rapids: Eerdmans. 나동광 역 (1989). 『현대 서구문화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Posner, Richard A. (1994), *Sex and Reas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이민아·이은지 역 (2007). 『성과 이성: 섹슈얼리티의 역사와 이론』. 서울: 말글빛냄.
- Robertson, David A. (2007), *The Dawkins Letters*. Christian Focus Publication, Ltd. 전현주 역 (2008). 『스스로 있는 신』. 서울: 사랑플러스.
- Ruse, Michael (2000), *Can a Darwinian be a Christian*.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태하 역 (2002). 『다윈주의자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 서울: 청년정신.
- Sire, James W. (1997), *The Universe next Door*. Downers Grove, IL: IVP. 김현수 역 (1991).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 IVP.
- Sire, James W. (1980), *Scripture Twisting*. Downers Grove, IL: IVP. 박우석 역 (1993). 『비뿔어진 성경해석: 이단의 그릇된 성경해석 20가지』. 서울: IVP.
- Sire, James W. (1990), *Discipleship of the Mind*. Downers Grove, IL: IVP. 정옥배 역 (2002). 『지성의 제자도』. 서울: IVP.
- Snyder, Howard A. (1977), *Community of the King*. Downers Grove, IL: IVP. 김영국 역 (2000). 『그리스도의 공동체』. 서울: 생명의말씀사.
- Toffler, Alvin (1971), *Future Shock*. New York: Bantam.
- Wallis, Jim (2005), *The Call to Conversion: Why faith is always personal but never private*. revised editions. New York, NY: HarperCollins. 정모세 역 (2008). 『회심』. 서울: IVP.
- Walsh, Brain J. and J. Richard Middleton (1984), *The Transformation Vision: Sharpening a Christian World view*. Downers Grove., IL: IVP. 황영철 역 (1989). 『그리스도인의 비전』. 서울: IVP.
- Wilhoit, Jim (1986), *Christian Education and the Search for Meaning*.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신서균 역(1991). 『현대 기독교 교육』. 서울: 기독교서회.
- Wolffe, J. (2007), *The Expansion of Evangelicalism: The age of Wilberforce, More, Chalmers and Finney*. Nottingham: IVP. 이재근 역 (2010). 『복음주의 확장』. 서울: CLC.
- Wolters, Albert M. (198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MI: Eerdmans. 양성만 역 (2004). 『창조·타락·구속』. 서울: 기독교학문 연구회/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 Wolterstorff, Nicholas (1991), *Reason Within the Bounds of Religion*, 2nd edition Grand Rapids, MI: Eerdmans. 문석호 역 (1991). 『종교의 한계 내에서의 이성』. 서울: 성광문화사.